

## 밖은 못 보고 안에만 매몰된 '외눈박이' 정치

태평로



김진명

논설위원

유학 시절, 동아시아 외교사를 가르치던 영국인 교수가 “한국인들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라서 식민지 배를 당했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다. 조선 왕조가 개혁에 성공했다면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물었다. 국호(國號)만 대한제국으로 바꾸지 말고 개혁에 매진해 서방 자본이 두루 이익을 보는 나라도 만들었다면 독립은 유지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얘기였다. 그러지 못한 채 청·일·러·일이 한반도를 두고 연달아 전쟁을 벌이자 정세 안정을 원한 영·미가 일본의 식민지 배를 용인하게 됐다고 그는 주장했다. ‘영국 입장에서 서 일본 편을 드는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참고 자료로 제시된 청나라 외교관 이홍장(李鴻章)의 서한을 읽다가 기습이 달라졌다. 그 교수의 주장이 꼭 옳아서 아니라, 조선이 얼마나 국제 정세에 어두웠는지 여실히 드러나서였다.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생각했던 이홍장은 류큐(오키나와)를 병합한 일본이 조선마저 차지할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1879년 조선에 서한을 보내 “일본이 겁내는 것은 서양”이라며 “서양의 여러 나라와도 차례로 조약

김준의 맛과 삶 [22]

### 전라도 김장용 잡젓

지난 주말 아이들까지 가족 모두가 모여 김장을 마무리했다. 사실은 2주 일 전 젓갈을 끓이면서 김장이 시작되었다. 김장은 배추 맛이 좋아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핵심은 젓갈이다. 이번에 준비한 젓갈은 김장을 만들고는 맛을 끓여서 액젓을 내렸다. 젓물을 끓여 액젓을 내리는 과정에서 골고루 냄새가 진동한다. 그 냄새를 처음 맡아 본 사람들은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리지만, 그 맛을 본 사람은 그리워도 바뀐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맛은 깊어진다. 고 흥살이를 시작하면서 젓갈을 다리는 냄새로 이웃 눈치를 살피는 일이 사라졌다. 오히려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냐고 오가는 사람들이 묻는다. 젓젓은 장인이 자기 커피를 만드는 것처럼 ‘블렌딩’ 한다. 여기에 고춧가루, 파, 마늘, 미나리, 갓, 생강, 무, 당근, 청각, 참깨, 풀, 생새우, 석화 등 기호에 맞게 더해

커다란 솥에 각각 숙성한 젓갈을 넣고 끓여서 액젓을 내렸다. 젓물을 끓여 액젓을 내리는 과정에서 골고루 냄새가 진동한다. 그 냄새를 처음 맡아 본 사람들은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리지만, 그 맛을 본 사람은 그리워도 바뀐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맛은 깊어진다. 고 흥살이를 시작하면서 젓갈을 다리는 냄새로 이웃 눈치를 살피는 일이 사라졌다. 오히려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냐고 오가는 사람들이 묻는다. 젓젓은 장인이 자기 커피를 만드는 것처럼 ‘블렌딩’ 한다. 여기에 고춧가루, 파, 마늘, 미나리, 갓, 생강, 무, 당근, 청각, 참깨, 풀, 생새우, 석화 등 기호에 맞게 더해

되겠다. 그들의 속내는 이미 들통났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을 체결해 일본을 견제”라고 권했다. 정받지 못한다. 우리 동맹이자 우방인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목적은 통상을 하자는 것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선은 “예수교는 오도(吾道)와 다르다”는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아편전쟁을 겪어본 청이 서양의 왕래 요구를 “사람의 힘으로는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도, 조선이 오히려 “서양 나라들과 일본도 당신의 위엄 아래에서는 감히 방지하게 놀지 못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계엄은 국제 정세 무시한 선택

野 ‘줄탄핵’ 협박도 국내만 보는 일 ‘중국이 웃고 있다’ 소문 도는데 민감한 시기 한미 동맹 안정시켜야

‘외눈박이’ 이긴 한데수 권한대행과 남은 장관들의 ‘줄탄핵’을 거론하는 악권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 그 탄핵된 대통령의 대행까지 탄핵되면 도대체 어떤 나라로 보일까. 미국이 지금 그나마 믿고 있는 사람과 주미 대사 출신의 한 대행인 것도 사실이다. 그려놓아도 미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외교노선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애당이 한 때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북·중·러에 대한 적대시’를 꼽았던 것을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적극 중국을 비판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접근에 의문을 제기했다’고도 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뒤에서 웃고 있다’는 말까지 둔다. 트럼프 당선 후 동맹 간 마찰을 예상하고 그 틈을 타서 한국을 끌어당기려 했는데, 잘하면 손 안 대고 코풀게 생겼다는 것이다. 국내적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한미 동맹부터 관리해야 한다.

### 전라도 김장용 잡젓



김치소를 만든다.

잡젓은 어떻게 만들까. 수심이 알고 조차가 큰 칠산 바다의 고기잡이 어법과 상관성이 높다. 지금은 안강망을 이용하지만, 그전에 주목망이나 중선망을 이용했다. 모두 어구 입구가 크고 안은 쫑고 긴 자루 그물이다. 철에 따라 숭어, 병어, 황석어, 새우, 벤댕이, 반지, 갈치, 장어, 꽈개, 주꾸미, 낙지 등 다양한 해산물이 그물에 들어온다. 이 중 돈이 되는 해산물은 주어서 팔고 나머지는 잡젓을 담근다. 전라도 계미 진 김치는 이렇게 탄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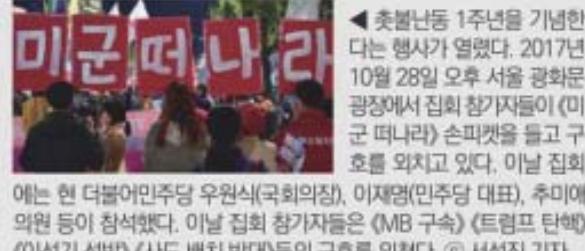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미국 당국에게 요구한다

newdaily.co.kr 뉴데일리

## 비자 발급 당장 중단하라, 《반미-친중 활동 한국인들》에게

미대사관-대사관저 침입·난동 그들 정체 알고 있나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한 이재명 정체 알고 있나 반미-친중 온갖 부류, 출입국 계속 방관할 건가



에는 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회의장), 이재명(민주당 대표), 추미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MB 구속》《트럼프 탄핵》《이석기 석방》《사드 배치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 서성진 기자

민주당은 《반미-친중》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

2024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타 좌의 정당들이 밀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

령은 한미일 동맹에만 치중했다. 북·중·러 유라시아 전체주의엔 적대했다. 이게 탄핵 사유의 하나다.”란 소리다.

그렇다면 민주당 등은 《반미-친중》이란 자백인가?

### 한국인 약 절반인 《반미-친중》

12월 24일 국회를 통과된 탄핵 결의문은 위 구절이 빠져 있다. 나중에 보니 속 보였음을 알았나? 그 구절을 뺐다 해도, 그들의 속내는 이미 들통났다.

민주당과 그 우당(友黨)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탄핵 찬성자들은 결국 《반미-친중》 분자들이 셈이다. 이걸 미국은 알고 있나? 자기들이 《동맹국》이려니 알아 온 한국인들의 약 절반이 《반미-친중》 세력이라면, 미국은 지금까지 두 눈 멀쩡히 뜬 채 속아 산 꼴이다. 화안 나나. 미국?

### 《반미》 외치며 자녀는 미국 유학

한국 사회 각계각층에는 《반미-친중》 정당과 정치인들에 게 표를 주는 유권자들이 해변의 모래알만큼이나 많다. 대중이 어디나 선동당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논외로 치자.

문제는, ★먹물끼나 들었다는 대학교수 ★대기업 상층부 종사자 ★연예계 ★문화계 ★언론계 ★각계 전문직 ★중상층 공무원층에도 이런 부류가 엄청 많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몸은 중상층 부르주아이고, 머리는 3급 좌파 내지는 좌파에 동정적인 좌속》이다.

이들은 미국 등 서방세계를 《제국주의》라 부르는 《좌파 교육의 피해자》들이다. 그러나 체질적으로는 《부르주아적 삶의 방식》에 절여있다. 그걸 즐기기도 한다.

그들은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의 인권유린》 어찌고 떠들면서도, 《북한 김정은 체제하의 참혹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들은 미국 등에 자녀를 유학시킨다. 모순이다.

### 미국은 속고 있나?

미국은 속고해야 한다. 이런 《반미적 한국인들》에게 계속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할 작정인가? 1980년대에 《반미-친북-친중 혁명운동》에 몰입했던, 그러면서도 오늘날까지 그것을 참회하지 않는 《NL 활동가(national liberation movement activist)》들을 계속 입국시킬 작정인가?

그들 중 다수는 오늘날 저 무도한 국회를 주도하는 국회 의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미국에 이들이 동맹군인가, 이들과 피투성이로 싸우는 자 유 한국인들이 동맹군인가? 미국은 저들 《반미 활동가》들에 응당한 외교적 제재를 가해야 할 때다.

한국의 자칭 《진보주의자》들의 본질은 소위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다.

이들은 《민족, 민중, 민주》를 걸어 내세우지만, 실은 《극 좌 혁명》의 위장명칭일 뿐이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듣고 있나? 《주한 미국 대사관 경내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던 저들의 정체》를 미국인들은 아직도 모르는가?

미국의 엄중한 대응을 요구한다.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